

투데이 칼럼

칭찬의 스피치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한다.

칭찬 말 한 마디가 조직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달에는 중앙대학교 민병철 교수를 비롯한 뜻 있는 지도자들이 '추임새' 운동본부를 창립해 칭찬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비난, 집단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고 보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수는 "월드컵 응원운은 칭찬의 문화가 승화될 것이므로 서로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가정,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최고 경영자(CEO)들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매주 수요일은 칭찬하는 '추임새의 날'로 지정했다고 한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직장에서는 칭찬이 곧 업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자네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일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유머감각도 탁월하군"이라 칭찬을 들었다면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없을 것이다. 일에 대한 능력은 물론 유머 감각

이 뛰어나다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서 구체적인 칭찬이나 격려에 대한 다양한 스킬을 알아보자.

상대가 지닌 차별화된 능력이나 인간성 등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여 칭찬하는 것은 내면적 칭찬이다.

외모에 대한 칭찬은 손, 얼굴, 머리, 신체부위 등 개성적인 용모나 특정부위 등 장점이 있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다.

상대가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소소한 소지품이나 주변의 물건을 칭찬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친척 또는 관련된 주위환경에 대해 칭찬하는 것도 좋다.

또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칭찬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들은 듯한 우회적인 칭찬도 좋은 방법이다. 민일 상대가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다면 더 좋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칭찬과 아첨은 다르다. 상대의 아첨에 귀기울이면 자신의 삶에 미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에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한 자는 칭

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계획적인 칭찬은 때로 아첨이나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받아들여져 상대의 기분을 오히려 상하게 하는 수가 있다. 칭찬의 기본은 진실한 마음과 호의가 담긴 마음으로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칭찬스피치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확실하게, 둘째,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셋째, 진실하고 열린 마음으로 넷째, 간단하고 배려(장소, 환경)하며 다섯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여섯째, 은밀으로 하고 본심이 있는 연기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곱째, 가벼운 비판은 앞에, 칭찬은 뒤에 한다.

칭찬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바디랭귀지를 이용하여 칭찬하는 구체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빛을 보내면서 칭찬한다. 둘째, 손을 잡아주며 칭찬한다. 셋째,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한다. 넷째, 머리를 쓰디듬으며 칭찬한다.

칭찬은 스스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 자기대화는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격려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데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하루에 보아 오침을 지어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 두 젊은 하루 칭찬 두 번 하기, 또 두 젊은 관심 보여주기(전화, 메시지, 편지, 문자 메시지 등), 또 한 젊은 포옹(스킨십)하다. 얼마나 행복한 부부 사이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자.

인간 관계의 이상적인 상태란 서로가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상태이다. 오늘도 무릎을 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최고라고 해 보이면서 긍정적인 스피치 생활을 하자.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칭찬하며 생활하자.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성공적인 삶이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사설

도지사의 세일즈 농정

도지사의 세일즈 농정이 돋보이는 요즘이다. 연일 복분자 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됐는데 도지사가 관측 행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그 같은 행보는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2주년 기자간담회 등 여러 행사와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도민들로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들어서 복분자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두루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이 겹쳐 이종고를 겪고 있는 중에 판매시장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복분자 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수도권 관측 활동을 벌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면서도 마음 든든한 일이다. 그리고 복분자 판매 활동에는 여성소비자 연합과 관측 주민자치 위원회와 재경도민회소속의 청년회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 고마운 일이다.

도지사의 그 같은 세일즈 농정

이 돋보이는 이유는 또 있다.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사에는 '귀농귀촌박람회'도 있기 때문이다. 도 단위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그 프로그램을 보강해 다시 개최하는 등 세일즈 농정 행보에 애쓰고 있음이다. 과연 농도의 수장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컨벤션 센터에서도 내외 75개 유관 기관을 참여시킨 가운데 대대적인 행사를 사흘간 벌일 거라는 데 또한 큰 성과가 기대 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해야겠다. 도지사의 세일즈 농정이 고맙기는 해도 도내 복분자 농가 전체의 시름을 온전히 덜어줄 수는 없는 일일 터이다. 앞으로는 복분자 생산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도 소비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농정을 펼치도록 해야겠다. 과잉 생산이 아닌 적정량을 생산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겠다는 당부이다.

지금은 다 함께 지역 발전 도모할 때

지금은 다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그러려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당이 우환에 시달리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심사를 향토 발전에 두어야 한다. 도민들의 바람은 그 언제나 지역 발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예산 증액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 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년 당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도민의 뜻대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챙겨야 한다. 그러려면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동 보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번에 주문했던 것은 그래서이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든 우리 지역의 몫을 온전히 챙기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워낙 자주 반복해 주문했던 거라 귀가 성가실 테지만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나 매번 그 실상을 보자면 아쉬운 게 하나

이 아니다. 다시 말하거나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 한 예로 충북이 바로 그러하다. 예전에 전주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던 청주는 이제 전주를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쪽은 답보 상태 내지는 퇴보 상태라 여간 서운하고 답답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앞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하거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면 한다. 예산이 증액된다 해도 그게 소액이라면 반갑지 않다. 향토의 오랜 낙후 때문에 도민들은 상처가 깊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챙기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 발전 청사진이 그 실체를 보려면 큰 폭의 증액이 절실하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전북도가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독자제언

불쾌지수 높은 무더위 보복운전 위험 높아져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지수도 꽤 오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멘트가 일기예보에서 자주 나오는 시기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협소한 차안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켜봐도 불쾌지수는 점점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경찰청은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한 결과 803명을 형사 입건하였고, 803명중에서 급제동·급감속 208명(41.6%), 밀어붙이기 96명(19.2%), 폭행·육설 85명(17.0%) 순으로 단속 되었다.

급하게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데 갑

자기 앞으로 끼어들거나, 앞에서 너무 천천히 진행하는 바람에 도로 속도보다 한참 느린 속도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흥분된 상태에서 급제동, 밀어붙이기 등으로 표현하거나 목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겁을 주거나 목적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는 잠깐 사이에 일어날 수 있으며, 차량 안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유형주 남원경찰서 도봉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보행 중 이어폰·스마트폰 사용 삼가야

관내에 대학교가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광경을 많이 본다 사고로 이어질만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느끼고 있어 몇자 적어본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무려 44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

이는 총인구 대비 약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거의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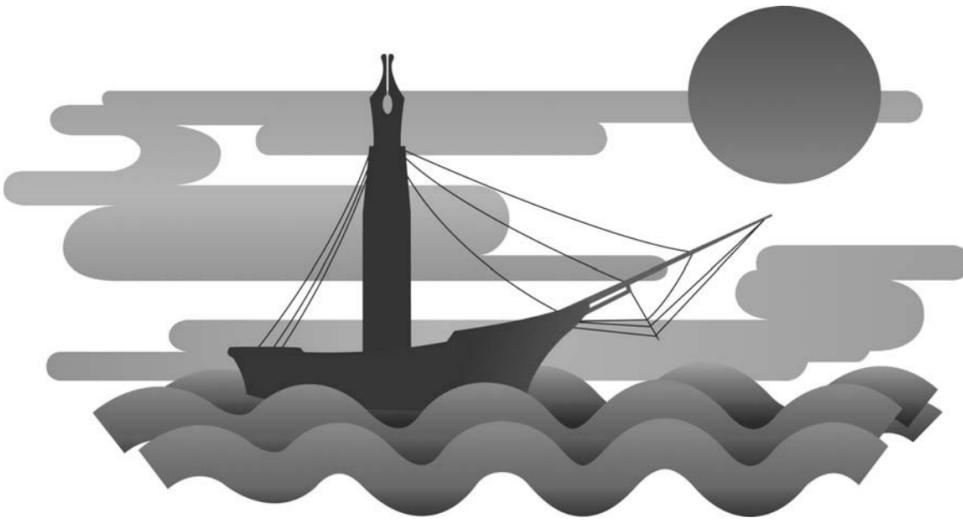
행 중 스마트폰 사용 역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한폭탄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행 중 이어폰을 끼 채 인터넷을 하며 가는 사람은 몰발상황에 따른 지각능력이 50%이상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지난 몇년간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행 중 급한 일이 아니면 안전을 위해 잠시 꺼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강정기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